

■ 그림 여행



촛불을 보는 막달레나

(Magdalen with the Smoking Flame c. 1640)

조르주 드 라투르 (Georges de La Tour 1593-1652)  
(캔버스에 유채 128cm x 94cm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한 해가 또 저물고 있다. 지금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이 살아온 일년을 되돌아 보고 있을 것이다.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는 마음 속에는 무엇이 떠오를까? 기뻐던 일도 있겠지만 아쉬움과 후회, 반성을 동반하는 기억도 많을 것이다.

그림 속에는 어두운 방안에 검은 그늘음을 피워 올리며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근원 불꽃을 들여다보며 막달레나는 왼손을 턱에 괴고 조용히 앉아 있다. 그녀의 오른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는 해골 위에 무심히 얹혀져 있다. 해골을 쓰다듬으며 촛불을 들여다 보고 있는 모습이 한없이 고요하다. 흔히 말하는 '명상'의 모습이라 쉽게 말하기엔 너무나 진솔하고 소박하다.

성경에서 막달레나는 방탕한 삶을 살다 회심한 여인으로 나온다. 그림 속에 묘사된 그녀는 아마도 회개 후의 모습일 것이다. 그녀는 초라한 옷을 입고 맨발인 채 어딘지 모를 어두운 방 안에서 하염없이 촛불을 내려다 보고 있다. 빛은 어둠 속에 그녀

의 얼굴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촛불을 들여다 보고 있는 인간의 내면에는 한없는 공간과 시간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며 무슨 생각을 할까. 참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혜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몰두하는 시선과 달리 손으로는 두려움 없이 해골을 만지고 있다. 해골은 죽음을 일깨워준다. 삶이란 덧없으며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얹혀져 있는 그녀의 손처럼 삶은 죽음과 항상 마주하고 있다.

조르주 드 라투르는 어두운 방안에 타오르는 촛불을 그려 인간의 내면에 일렁이는 자기 성찰의 불꽃을 암시했다. 덧없는 삶의 허무함과 생명의 유한성을 어루만지며 내면을 응시하는 인간. 지난 일년을 되돌아 보는 모든 이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동백》

한인이 운영하는 청소재료상 중 가장 큰

**Brother's**  
**청소재료상**  
Janitorial Supplies



**도매**  
**최저가격**



**무료배송**

가정용 청소기구 재료에서부터  
큰 빌딩 청소 각종 기구,  
재료까지 완벽하게 구비!

각종 청소기계 수리 전문!  
최신 청소기계 재료 다량 확보

각종 새로 개발된 청소 약품  
화장지 / 각종 종이 / 타일 / 대리석  
카펫 샴프 기계 / 왁스 기계  
최신형 장비 일절 구비

Open : Mon-Fri 9am-6pm / Sat 10am-4pm

**(562) 920-9090**  
**(562) 920-9595**

Fax. 562-920-9596

16211 Bellflower Blvd. Bellflower, CA 90706

www.unicaresurgery.com

애나하임

쾌적한 병원시설에서 만족한 의료시술을 경험하십시오.

**UNICARE SURGERY CENTER**

유니케어 수술센터  
Tennis Elbow 시술센터



- 테니스엘보우 시술 • 관절수술/골절수술/척추수술
- 각종 통증수술

- ▶ UNICARE SURGERY CENTER
- ▶ Orthopedic/Podiatry/Plastic/Hand & General Surgery
- ▶ 줄기세포(Stem Cell), 자가혈청치료(PRP)
- ▶ 각종 수술 상담

미국보드 전문의와 최신 의료장비와  
진료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 시술을 해드립니다.

각종 PPO보험/교통사고, 직장상해보험/메디케어 취급, 여행자보험, 기독의료상조



**UNICARE**  
SURGERY CENTER

**714-332-5000**

1741 W. Romneva Dr. #B, Anaheim, CA 92801